

# 전라감영 배경 궁궐팔궐 애니 제작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 선정 · 국비 5억1000만원 확보 3D 애니메이션 ‘궁궐별전-전주성의 비밀’ · ‘권번기생 허산옥 소재 뮤지컬 웹무비’ 콘텐츠 개발 추진

전주시가 복원·재창조되는 전라감영을 배경으로 궁궐팔궐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사극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주의 마지막 기생이자 소리꾼과 여류화가로 활동하며 '전주 문화예술계의 대모'로 불리는 허남전 허산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한 웹무비도 제작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18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공모에 '궁궐별전-전주성의 비밀', 2018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권번기생 허산옥 소재 뮤지컬 웹무비' 등 2개 과제가 각각 선정돼 총 5억 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4일 밝

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전주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거나 지명, 인물 등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와 진흥원은 참여 기업들과 공동으로 오는 2019년 2월까지 개발에 나선다.

먼저, '궁궐별전 - 전주성의 비밀(5분 6부작)'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과제로 전라감영을 배경으로 궁궐팔궐전을 현대적으

로 재해석한 판타지 추리액션 퓨전사극 3D 애니메이션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3D 애니메이션·3D 모델링 전문 제작사이자 MBC와 JTBC 등 다수 채널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수빈스토리 1·2'를 제작한 (유)올빼미하우스(대표 배효상)가 제작하며,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권번기생 허산옥 소재 뮤지컬 웹무비(20분 5부작)'의 경우 권번기생 출신 남전 허산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웹무비로, 음악과 음식을 통해 삶에 지친 2030 세대들에게 힐링을 전할 예정이다. 이 뮤지컬 웹무비는 영상영화 콘텐츠 제작기업인 (주)하너바람(대표 김주환)

이 개발에 참여한다.

시는 지역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무비와 같은 뉴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은자 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전주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진흥원과 협력해 문화콘텐츠 발굴과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청춘마이크 '와 여름이다' 특별공연

### 격포 · 선유도해수욕장 · 덕유산자연휴양림 등 순회공연 미술 · 비보이 · 전통음악 · 밴드공연 등 다채롭게 선보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대표적인 휴양지에서 도민과 관광객의 더위를 날려줄 청춘마이크 하계 특별순회공연을 한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25일을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부안 격포해수욕장, 28일 오후 4시부터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야영장, 2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최근 관광지 주목받고 있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에서 공연이 진행 된다고 밝혔다.

피서지에서 만나는 청춘마이크 7월 공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술·비보이·전통음악·밴드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 도민들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문화쉼터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존 객사 인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17시부터 진행하던 청춘마이크 전북권 고정형 공연은, 올해에는 7~8월 여름철 야간공연으로 19시 30분부터 NC웨이브 전주점 B관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임진아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장은 "2018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열정과 재능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며 "도내 피서객 또는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많이 관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청춘마이크 전북권 공연별 스케줄은 매달 중순 재단 홈페이지 또는 SNS(청춘마이크전북 검색)를 통해 소개되며, 관련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42)으로 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직독직해(直讀直解)의 삶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

### 전주시, 시청강당서 시민 500여명 대상 열린시민강좌 열여 최형만 개그맨 강사로 초청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라' 강연

제179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4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 시청 강당을 메운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30대 후반에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 3년 만에 단국대를 조기 졸업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브레인 행복전도사'이자 '책'을 쓰고 읽는 개그맨으로 잘 알려진 최형만 씨가 초청돼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라'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강사는 이 자리에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위학일익 위도일손(爲學日益 爲道日損, 배움은 매일 채우는 것이고 도란 매일 비우는 것이다)'를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며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은 '자기'이며, 자신을 알고 독특함을 키워 나가는 것은 학문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문학은 지옥에서 가능성을 찾는 일이며 독서란 무지한 인간을

개우는 각성제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님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귀머거리가 없다"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직독직해(直讀直解)의 삶을 사는 것이 멋지며, 모두가 자기만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산너머종합사회복지관 노을동아리의 우리춤공연이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조준모 MC의 진행으로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열린시민강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름더위도 피하고 삶의 변화

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와 강사님들을 모셔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 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강좌는 오는 8월 14일 한명기 명지대학교 교수의 '격동기에 돌아보는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제179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4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주 시청 강당을 메운 가운데 열렸다.

##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오늘까지

전주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복숭아를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20회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가 24일과 25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주복숭아 생산 농가와 시민이 함께 만나는 이번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에서는 전주명품복숭아 선발을 위한 품평회를 비롯, 품종별 전시와 복숭아 개발요리 전시 등 풍성한 볼

거리가 마련됐다.

또한, 복숭아 직거래 장터와 시민가 요제, 한여름 밤의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성인 가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숭아 생산 농가들은 행사기

간 장택과 마도카, 대옥계, 그레이프 점보 등 맛과 품질이 뛰어난 품종의 복숭아를 선별, 매일 2,000여 상자 정도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4kg 1상자 기준으로 13,000원부터 22,000원까지이다. /송효철 기자

## 김광수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설치해 선거운동"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60·전북전주갑) 민주당의원 의원 보좌관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본부가 선거법에서 설립 등을 제한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당시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이를 설치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둔 지난 2016년 1월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당시 김광수 후보의 홍보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SNS를 관리해주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원이 상대 후보자와 불과 7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근에 보좌관에서 면직됐다. /뉴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